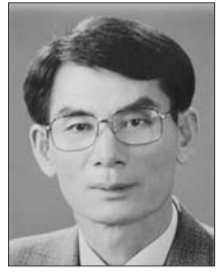


호매칼럼



이정량 /중국고전평론가

가치부전(假痴不癡)

- 어리석은 척하되 미친 짓은 말라 -

"가치부전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여 상대나 적을 안심시키는 방법이다.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며, 무공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고수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하나는 호랑이로 분장하여 패지를 잡아먹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패지로 분장하여 호랑이를 잡아먹는 사람이다.

호랑이를 가장하여 패지를 잡아먹는 사람은 원래 그 재능과 지위에 있어서 그다지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분장을 하여 자신의 위풍을 드러내 남을 위협한다. 그러나 패지로 분장해 호랑이를 잡아먹는 사람은 이와는 반대이다.

본래 자신은 호랑이처럼 영웅적인 기질을 갖추고 있으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명칭한 모습을 하고 상대방을 유인한다.

노자老子도 '큰 교활함은 마치 졸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공자도 '큰 지혜는 마치 어리석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말의 뜻은 고도의 학술이나 수양을 거친 사람은 자연에 순응하여

큰 그릇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기교를 부려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논조를 노자의 사상으로 말하면 '무위치(無爲而治)'의 관념이고 공자의 사상으로 보면 외모에서 아무 의도나 욕심이 없을 때 청고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지, 일을 진행 시켜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의 예에서는 이렇게 한가롭게 소극적일 수는 없다.

더욱이 싸움을 할 때는 더욱더 그렇다.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를 위해 겉 많고 허약함을 드러내고 암암리에 음모를 꾸며 고의로 바보처럼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 '패지로 분장을 해 호랑이를 잡아먹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는 곧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을 때 힘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판타지 서사 한 마리 패지처럼, 분장을 하고 패지 소리를 흉내 내어 호랑이를 유도한 후 가까이 왔을 때 기습적으로 일격을 가해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수법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얼굴에는 전혀 공격적이거나 적의를 나타내지 않고 겉으로 모든 일에서 순수히 따라하는 태도를, 취하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입언저리에는 패지기름을 발라 노비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상대방으로 하여 자신에 대해 전혀 경계의 빛을 띠지 않도록 하여 일단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려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때려잡는 법을 일컫는다.

고대에서 패지의 비천한 모습으로 호랑이를 철저히 때려잡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선 월왕(越王) 구천(句踐)을 들 수 있다.

구천은 나라가 망하자 정절을 지켜서 부왕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절면피처럼 오왕 부차에게, 항복을 했다.

석실(石室)에 갇혀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자신은 물론 부인까지 노예가 되어 봉두 난발하여 소 우리를 끌고 말뚝을 치우며 부차의 똥을 훔으며 동정을 사고 온갖 아부를 다 해 사면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런 '패지로 분장하는' 정신은 아무도

따라 하지 못할 정도였다. 일단 석방되어 월나라로 돌아와서는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십 년 동안 복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그리고 입금 가지 정책을 썼는데 첫 번째, 뇌물을 바쳐 적의 군신들을 기쁘게 해준다. 둘째, 식량을 모아 적의 군량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한다. 셋째, 미인을 보내 적의 마음을 교란시킨다. 넷째, 재능 있는 목공을 보내 적의 궁궐을 화려하게 꾸미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모신(謀臣)을 파견하여 적의 모략을 어지럽게 한다. 여섯째, 충신과 임금 사이를 이간시켜 서로 싸우게 한다. 일곱째, 재물을 저축하고 병력을 양성해 적이 약해진 틈을 노린다. 등이었다.

이와 같은 책략을 펴서 십 년 동안 꾸준히 칼을 간 끝에 결국은 오나라를 무찌르고 부차를 사로잡게 되었다.

서기 239년, 위(魏)나라 명제(明帝)는 병이 위급해지자 태자 조방(曹芳)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조정은 사마의(司馬懿)와 조상(曹爽)이 공동으로 집정하고 있었는데,

위양감을 느낀 사마의는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서기 248년 겨울, 조상은 형주자사로 부임한 이승(李勝)에게 정적인 사마의의 동정을 살피라고 명령했다. 이승이 사마의의 집에 도착하여 방에 들어가 형세를 살피니 그 꼴이 정말로 병자와 같았다.

사마의는 이승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다. 또 사마의는 일부러 웃기에 죽을 흘리는 등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승은 사마의가 정말로 치매에 걸렸다고 판단하고 돌아갔다. 그는 사마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염려할 것이 없다고 보고했다. 조상은 사마의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조상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사마의는 서기 249년 조상이 마음을 놓은 틈을 타 자신의 두 아들 사마사(司馬懿), 사마소(司馬昭)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조상과 그 일당을 반역죄로 일망타진하여 동시(東市)로 끌고 가 처형했다.

이후부터 사마씨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차량화재,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품

최근 유명 수입차 중 특정 연식 및 차종에 대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는 꼭 필요한 이유다.

차량화재의 특징은 대다수 도로에서 발생되기에 사고 규모를 떠나 차량 정체로 이어져 소방차 접근이 지연돼 초기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유류를 사용하고 폐쇄공간이 아닌 노출공간에서 발생되기에 순식간 전소로 이어져 하나의 객체를 전부 잃는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인구 3명당 1대를 보유하는 정도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

었다. 그러나 자동차 생산 세계 5위국이면서 아직까지도 일부 완성차에는 소화기하나 부착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으며, 별도로 자동차 영업사원이서 서비스로 비치해 주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 소비자가 구입한다.

차량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용량에 맞는 규격 전구나 퓨즈를 사용하고 각종 오일의 과부족과 누출 여부를 점검해야 된다.

주행 중 타는 냄새가 나거나 계기판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불길이 치솟기 전에 연기나 냄새, 온도변화를 살폈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고가 차량 화재

이다. 차량화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순식간'이라고 표현하지만 방화를 제외하고 운전자나 직접 목적을 하는 만큼 이제는 관심을 두

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둔다면 유사시 초기에 불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을 것이다.

/김형필(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가정 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자

구급출동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다쳐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에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집안 문이나 서랍장, 창문 등 모서리 부분에 넘어지거나 끼여 다치는 경우는 부모들이 조금은 집안 안전에 소홀하지 않은지 생각하게 한다.

낮은 위치의 식탁이나 TV 등을 올려놓는 수납장 등에 아이들이 달려거나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머리 등을 찰라 다치는 경우, 문 밑 모서리에 발가락이 끼여 발가락에 상해를 입는 경우, 심지어 장난을 치다가 앞선 사람이 문을 닫는 바람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례까지 있다.

이런 사고들은 휴지나 솜 등을 두껍게 문쳐 테이프를 이용해 모서리를 감싸놓는다면 사고에 미리 만 들어진 제품을 구입하여 조치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이다.

평소 집안이기에 안전사고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가정 하에 평소 조금 더 준비하고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식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사소한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사랑이 아닐까?

/한선근(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알아봅시다 | 병원응급실, 교통안내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 회장 김현재, 발행·편집인 고계방, 편집국장 최춘의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L | 호남매일